



Hello! My name is Sister Catherine Meinert.

I was born to loving parents in the Bloomfield area of Pittsburgh, Pennsylvania. I attended elementary school at St. Joseph's in Bloomfield and graduated from St. John's High School in Lawrenceville in 1958.

In 1961,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and my years as a Sister of Charity have always been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I had the privilege of teaching in elementary schools in Pittsburgh and Greensburg and in Bethesda, Maryland. I loved teaching and have fond memories of the wonderful children I encountered and loved.

I was missioned to St. Therese School in Munhall in 1973 as principal. There were 543 children in the school at that time. I remember being very nervous as I began this ministry, but the students were wonderful and their parents were very supportive of the Sisters and everything we were trying to accomplish in the school, especially giving them Catholic values to guide their lives.

In 1982 Sister Baptista requested that I apply for a Pittsburgh Diocesan position as an Educational Consultant. This would be equal to being a supervisor for elementary schools in the diocese. I was hired and had this great opportunity from 1982 to 1996. I was responsible for the Catholic identity and curriculum of 32 schools. I was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director and Testing coordinator for all the diocesan schools.



During this time as Educational Consultant, I had the great honor of being elected to the 12-member National Catholic Education Association advisory council. I represented Pennsylvania and New Jersey. It was an awesome ministry and responsibility. We planned the national convention and proposed curriculum for Catholic schools in the entire nation.

Then in 1996 I received a phone call from our Council that I would be missioned to Conn-Area Catholic as principal. What a wonderful experience. The children, faculty and parents were so passionate to provide the best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Whatever was needed, they were there to assist!

My days as principal ended when I was elected to Council in 2007. However, education is still the passion of my life. We know that Our Lord taught us through the many Gospel stories as he tried to teach the apostles and those who followed Him. I believe that it is only through education that we can move people out of poverty. There can be many ways to educate regardless of the ministry we embrace, but education is the key.





안녕하세요! 캐더린 마이너트Catherine Meinert 수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 슬하에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블룸필드Bloomfield에서 태어났습니다. 블룸필드의 성 요셉St. Joseph 초등학교를 다녔고, 1958년에 로렌스빌Lawrencevill의 성 요한St. John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61년에 입회하여 사랑의 수녀로서 교육사도직에 계속 몸 담았습니다. 피츠버그와 그린스버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Bethesda의 초등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고 제가 만나고 사랑했던 훌륭한 아이들과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는 먼홀Munhall의 성 테레사St. Therese 학교에 교장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학교는 학생 수가 543명이었습니다. 교장으로 사도직을 시작하면서 아주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훌륭했고 학부모님들도 우리 수녀님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지지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학생들의 삶을 이끌어 갈 가톨릭의 가치를 전하려고 했지요.

1982년에 뱍티스타Baptista 수녀님은 저에게 피츠버그교구 교육 컨설턴트에 지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교구 교육 컨설턴트는 교구의 초등학교 교육감이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임용이 되어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고, 32개 학교의 교과과정과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교구 내 모든 학교의 사회 교과 과정 책임자이자 시험 조정관이었습니다.



교육 컨설턴트로서 일한 이 기간 동안 저는 영광스럽게도 12명으로 구성된 전국 가톨릭 교육 연합 자문위원회에 선출되어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를 대표했습니다. 정말 멋진 사도직이자 책임이었지요. 이 위원회는 전국 가톨릭 학교에 교과목을 제안하고 전국 대회를 기획했습니다.



그 후 1996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콘-에어리어 가톨릭 학교Conn-Area Catholic school의 교장으로 파견된다는 전화였습니다. 정말 멋진 체험이었어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을

마련하는데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2007년에 관구 이사로 선출되면서 교장으로서는 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도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처럼 많은 복음을 통해 우리도 가르치십니다. 저는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직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바로 교육이 있습니다.

